

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, 역대 최고치 기록 두 달 앞당겨 경신

- 10. 27. 기준 종전 최대 기록(1,894만 명) 돌파, 사상 첫 2천만 명 돌파 가시권
- 연말 2,300만 명 목표 달성 기대, 3천만 명, 4천만 명 관광시대 준비 본격화

문화체육관광부(장관 최휘영, 이하 문체부)는 10월 27일(화),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역대 연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.

주변국 대비 견고한 성장세, 방한 시장 다변화 및 지역관광 확산세도 뚜렷해

10월 27일 기준,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종전 연간 역대 최고치였던 2025년 누적 방한객 수(1,894만 명)를 돌파*했다. 올해 들어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보다 두 달여 앞당겨졌다.

* 10월 26일까지의 외국인 관광객 수(잠정 1,891만 명) 및 올해 일평균 관광객 수(잠정 6만 4천 명) 고려

올해 9월까지 국제관광 동향을 분석한 결과, 주요 주변국 대비 한국은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였다. 주요 여행목적지인 일본(-2.9%), 태국(-3.8%)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외국인 관광객 수가 감소했고, 베트남은 14.5% 증가에 그친 반면 한국은 21.5% 급증했다.

방한 시장의 다변화와 지역관광 확산세도 뚜렷하다. 중화권(+29.1%)·일본(+16.9%)·동남아(+15.3%)·구미주(+15.1%) 등 대부분의 시장에서 방한객이 증가했다.

비수도권 공항·항만 입국객(482만 명)과 방한객의 지역방문 횟수(6,472만 회)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(374만 명, 5,407만 회) 대비 모두 늘었다. 방한객의 소비 규모 역시 쇼핑업(비중 37.0%), 숙박업(비중 19.6%), 의료·웰니스업(비중 16.6%) 등 위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7.7% 급증했다.

‘케이-컬처’와 범정부 협력, 국민의 환대가 만든 성과... ‘대체불가 관광대국’을 위한 도약 박차

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된다면 11월에도 약 194만 명 규모의 방한이 예상되어 11월 3주 차에는 사상 최초로 연간 외국인 관광객 누적 2,000만 명을 돌파하고, 연말까지 정부 목표치인 2,300만 명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.

정부는 ‘케이-컬처’의 세계적 확산과 국제 관광수요에 발맞춘 관광업계의 혁신, 외국인 관광객을 따뜻하게 맞이한 국민의 환대가 이번 성과의 밑바탕이 되었다고 평가했다. 또한 환율 변동과 고유가 등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, ‘국가관광전략회의’의 대통령 소속 격상을 통한 범부처 협력 강화를 비롯해 항공편 확충, 비자 발급 완화, 교통편의 증진, 중동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편성 및 해외 마케팅 강화 등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.

정부는 국정 목표인 외국인 관광객 3,000만 명 시대를 견인하고, 향후 국제 관광 대국으로서 외국인 관광객 4,000만 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‘국가관광전략회의’를 중심으로 중앙정부·지방정부·민간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.

최휘영 장관은 “역대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 최고치를 두 달여 앞당겨 달성하면서, 연초에 도전적으로 설정했던 연내 2,300만 명 달성도 실현 가능 범위에 들어왔다. 특히 지역 입국 비중과 지역 방문 횟수가 함께 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. 앞으로 방한 관광은 매일이 신기록이 될 것”이라며, “지금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, 질적 내실화에도 역량을 집중해, 한국이 세계 관광 시장에서 ‘대체불가한 여행목적지’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붙임 2026년 1~9월 방한 관광 상세 동향

담당 부서 <총괄>	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정책과	책임자	과장	김진희 (044-203-2871)
		담당자	사무관	윤홍민 (044-203-2865)
담당 부서 <통계>	한국관광공사 관광데이터서비스팀	책임자	팀장	전승훈 (033-738-3321)
		담당자	전문위원	양대경 (033-738-3323)
담당 부서 <빅데이터>	한국관광공사 관광데이터허브팀	책임자	팀장	이미숙 (033-738-3311)
		담당자	차장	이승희 (033-738-3312)

* 각 세목과 총계는 반올림된 값이므로, 세목별 합계와 총계가 불일치할 수 있음

□ 방한객 수

- (전체) 월별 '26년 9월 206만명 으로, 전년동기(170만명) 대비 +21.1%,
연간누적 '26년 1~9월 1,711만명 으로, 전년동기(1,408만명) 대비 +21.5%*

* 일본(-3%) · 태국(-4%) · 베트남(+15%) 등 주요국 대비 양호

(단위 : 만명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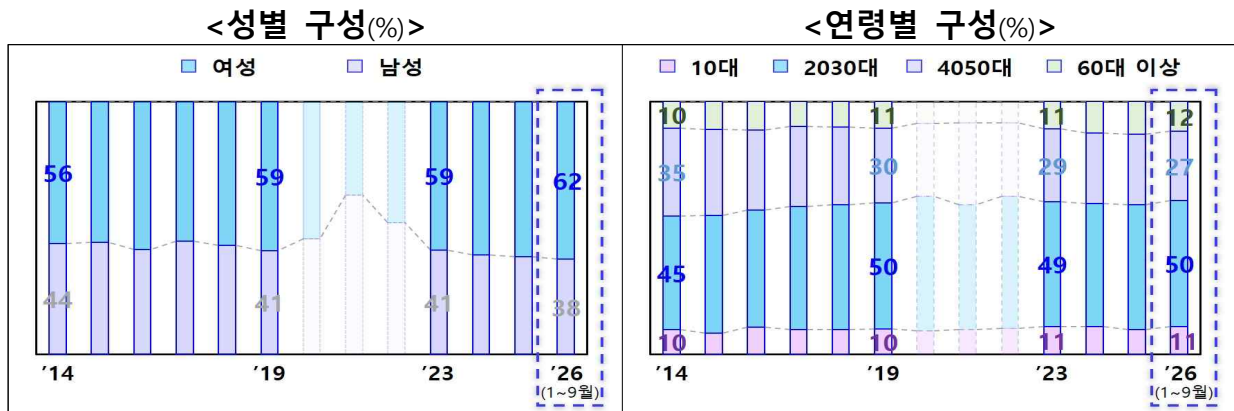
구분		'25년(1~9월, A)	'26년(1~9월, B)	증감률(B/A)
외국인 관광객 수	한국	1,408.2	1,711.0	+21.5
	일본	3,165.1	3,073.0	-2.9
	태국	2,411.5	2,319.9	-3.8
	베트남	1,544.2	1,768.1	+14.5

- (시장별) 규모 중화권(46.3%)·일본(18.2%)·구미주(17.9%)·아중동(17.1%) 순*,
성장률 중화권(+29.1%)·일본(+16.9%)·아중동(+15.3%)·구미주(+15.1%) 순

* 나머지는 아프리카 등(0.5%)

구분		'25년(1~9월, A)	'26년(1~9월, B)	증감률(B/A)
중화권		6,137,160	7,924,120	+29.1%
	중국	4,236,792	5,473,078	+29.2%
	대만	1,408,073	1,864,368	+32.4%
	홍콩	460,604	546,275	+18.6%
	마카오	31,691	40,399	+27.5%
일본		2,668,523	3,118,815	+16.9%
구미주		2,664,903	3,066,426	+15.1%
	구주	991,793	1,189,725	+20.0%
	미주	1,449,848	1,624,403	+12.0%
	대양주	223,262	252,298	+13.0%
아중동		2,532,841	2,921,595	+15.3%
	필리핀	438,646	507,288	+15.6%
	베트남	414,231	458,107	+10.6%
	싱가포르	247,046	276,899	+12.1%
	인도네시아	267,843	330,629	+23.4%
	태국	221,570	253,291	+14.3%
	말레이시아	215,016	231,948	+7.9%
기타(아프리카 등)		78,884	79,521	+0.8%
전체		14,082,311	17,110,477	+21.5%

- (성별 · 연령별) ^{성별}여성(62.4%) 多, 전년동기(61.3%)보다 소폭 증가
^{연령별}20~30대(49.8%) 多, 전년동기(49.4%)보다 소폭 증가



□ 지역관광

- (지역입국*) '26년 1~9월 28.2%**로, 전년동기(26.5%) 대비 +1.7%p
 * 비수도권 공항 · 항만 합산 / ** 연중 최고치

구분	'26.1.1. 이후 누적								
	1월말	2월말	3월말	4월말	5월말	6월말	7월말	8월말	9월말
공항	74.3%	72.7%	72.2%	71.6%	70.6%	70.0%	69.4%	69.2%	68.9%
항만	2.3%	2.6%	2.6%	2.8%	3.0%	2.9%	3.0%	3.0%	2.9%
수도권	76.6%	75.3%	74.9%	74.4%	73.6%	73.0%	72.4%	72.2%	71.8%
공항	17.9%	18.3%	17.9%	17.8%	18.0%	18.3%	18.6%	18.8%	19.0%
항만	5.5%	6.4%	7.2%	7.8%	8.5%	8.7%	9.0%	9.0%	9.2%
지방	23.4%	24.7%	25.1%	25.6%	26.4%	27.0%	27.6%	27.8%	28.2%

- (지역방문) '26년 1~9월 6,472만회로, 전년동기(5,407만회)보다 +19.7%
 * SKT 통신망을 활용하면서 지역별 2시간 이상 체류 시, 해당 지역 방문자로 추정

□ 관광 소비

- (신용카드) '26년 1~9월 15.9조원으로, 전년동기(10.8조원) 대비 +47.7%
 * 연간누적치(1~9월) 기준, 집계('18.1.~) 이후 역대 최고치
- (업종별) 쇼핑업*(37.0%)·숙박업(19.6%)·의료웰니스업**(16.6%) 순
 * 백화점 · 대형마트 · 면세점 등 / ** 병원 · 약국 · 화장품(로드샵) · 메이크업 등